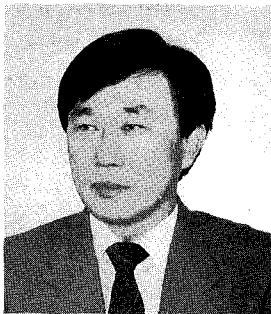


公害단속 강할수록 효과크다

— 「환경오염중양특별기동단속반」 발족에 즈음하여 —



関内鐵

(KBS·생활과학부 차장)

「공해단속은 강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크다」는 말을 환경행정관계자, 특히 일선단속반원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그만큼 공해배출주체들의 환경윤리의식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유아기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지난 15일 환경장관의 직속기구로 환경오염중양특별기동단속반이 출범했다.

단속대상은 대기·수질·폐기물·특정지역공해단속등 4개반이며, 최신장비에 전문교육을 받은 120명의 요원이 철야로 단속하게 된다. 또 위반사례가 적발됐을 경우에 처벌도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체형위조로 다룰 것이라고 한다.

중양특별기동단속반의 가동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일단 이 기구의 발족에 반가운 생각과 함께 50~60년대의 日本을 연상케 한다.

2차대전의 패전후유로 日本은 국민적인 경제빈곤에 빠졌으며, 절박한 민생해결을 위해 급속한 공업화정책을 시도했고, 공업상의 성공은 고도산업화와 경제부국으로 이어졌으나, 공해발생도 비례적으로 확산됐었다. 특히 지난 53년에 구마노또 지역 미나마타(水俣)라는 작은 어촌주민들 사이에 손·발이 마비되고 시력이 급히 감퇴하거나, 시각반경이 좁아지는 등의 장애를 일으키는 괴질이 발생했다.

이괴질은 2~3년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의사들의 진료소견도 각양각색. 그러나 결국 이괴질은 신종 공해병으로 판명됐고, 원인은 이 마을부근의 한공장에서 유기수은을 방류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들이 공해병에 대해 놀란 사례는 계속 일어나 55년에는 지방탄광의 폐수속에 포함된 카드뮴 중독이 “이따이이따이병”으로 등장해 全日本 열도를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또 67년에는 요카이치市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이 크게 유행했으며 “후쿠오카”에서 공업용유기염소제인 PCB (폴리염화페비닐)에 의한 중독환자가 무려 만 4천여명이나 집단발생하는 등 환경을 무시한 고도성장의 어두운 얼굴들이 곳곳에서 속출되었다. 이렇게 되자 새로운 공해병이 발생될때마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日本정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70년 7월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공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그해 연말에는 소위 “공해국회”를 소집해, 공해관련 14개 법률안을 단숨에 통과



◀ 환경처는
지난 11월 15일
장관직속기기로 총 40개반
120명으로 구성된
환경오염중앙특별기동
단속반의
발대식을 가졌다.

시키는 등 국력을 공해대책에 쏟으며, 한편으로는 최근 환경처가 발족시킨 중앙특별기동단속반과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강력한 단속을 펴고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몽을 늦추지 않았다. 또 당시 日本의 사회적 분위기도 최근 국내의 환경관련 민간단체들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여기에 호응한 국민들의 열기도 뜨거워 지역마다 공해를 막기 위한 주민중심의 자치집단을 결성하게 되고, 공해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대처하게 됐다. 이 결과로 오늘날 日本 전지역에는 1860여개의 마을단위 환경보호자치단체가 공해감시자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마을단위 환경보호자치단체의 활동은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어, 국민 10 사람 가운데 2명은 스스로가 환경보호 마을자치단체와 관련자임을 내세우고 자신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전국민의 공해 감시자화, 전국민의 환경보호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의 공해추방 행동요령도 막강한 힘을 발휘해 한 마을이나 한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면 그것이 옳을 경우 열흘, 길어도 한달안에는 日本국토에 연쇄적인 운동으로 파급된다. 이처럼 모든 日本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감시자를 자처하고 나서게 된데는 50, 60년대 공해피질에 놀란 日本정부의 신속한 대응기구마련과 함께 전국민을 상대로 한 對환경보전교육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日本의 환경보전에 대한 계몽대상은 10세

전후한 어린이들과 주부층이다. 사회적인 공해사범 예들들자면 상습공해배출업체나 비도덕적, 비양심적인 공해사범들에게 부담없이 매를 들 수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환경교육을 홍보해 왔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우리는 日本을 답습하고 있다고들 지적한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하기 힘든 이 지적이 공해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20년전의 공해대국이 오늘날 환경모범국으로 바뀐것만은 꼭 우리에게도 적용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왕 70년 日本의 총리 직속의 공해단속기구와 유사한 특별조직이 환경장관 직속으로 만들어진 만큼 그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련공무원은 물론 온국민이 이 기구의 출범에 기대하는 바 크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비추어 장관직속보다는 총리, 총리보다는 대통령직속기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온국민의 파수꾼역을 명예롭게 진임한 중앙특별기동단속반에 기대하는 바 크다.

“단속은 강할수록 효과가 크다”는 그들 스스로의 주장처럼 초기부터 가차없는 단속, 강력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밝은 사회 건강한 환경이 우리시대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공해단속중앙특별기동단속반」의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